

부모님·가난한 사람 등 잘 받드는 것 ‘참 불공’

⑦ 대구 동화사(桐華寺)

황하서류곤륜정(黃河西流崑崙頂)
일월무광대지침(日月無光大地沈)
거연일소회수립(巖然一笑回首立)
청산의구백운중(靑山依舊白雲中)

황하수 서쪽으로 거슬러 흘러 곤륜산 정상으로 오르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져 내린다.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려 서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오도(悟道) 가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순간, 스스로의 증명이 전부인 세계, 스무 살 때, <중도가>에 무릎을 치고 '생사(生死)'에 뛰어든 '성철'이란 이름이 스물아홉에 스스로를 증명하는 28자의 문자, 오도송이다. 스님은 대구 동화사 금당 선원에서 이 오도송을 읊었다. 9월 22일 성철 큰스님 수행도량 순례단은 이른 아침 대구 동화사로 향했다.

동화사는 신라 소지왕 15년(493) 극달 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부르다가 흥덕왕 7년(832) 심지대사가 중창할 때 오동나무가 겨울에 상서롭게 꽃을 피웠다하여 동화사로 고쳐 불렀다. 또 하나는 진표율사로부터 영심대사에게 전해진 팔간자를 심지대사가 받은 뒤 팔공산에 와서 이를 던져 떨어진 곳에 절을 지으니 이곳이 바로 동화사 청당 북쪽 우물인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창건설 가운데 신라 흥덕왕 7년(832) 심지대사가 중창한 시기를 사실상 창건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동화사는 창건 뒤 현재의 대가람으로 정비되기까지 여러 차례 중창과 개축이 있었다. 신라말인 934년 영조 선사, 고려 명종 20년(1190) 지눌 보조 국사, 고려 충렬왕 24년(1298) 흥진 국사에 의해 중창 중건되었다. 또 고려 말기에는 흥진 국사가 대구로 중창을 이루었다. 조선 시대에는 선조 39년(1606) 유정 사명대사, 숙종 3년(1677) 상송 대사, 영조 8년(1732) 관허, 운구, 낙빈, 청월 대사 등이 중창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담장 밑으로 코스모스가 피었다. 금당선원, 점심공양을 마친 300여 명의 순례단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선원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원택 스님도 선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스님이 이곳에서 오도송을 읊으셨습니까." 선원 현관 앞에 선 원택 스님이 금당선원을 소개했다. 원택 스님이 쓴 성철 스님의 행장에서 가져다 쓴다. "은혜사 운부암에서 하안거를 지냈다. 세종음화 2966년 7월 15일자로 발행된 안거증에는 주자가 하안거, 즉 동산 스님으로 밝혀져 있다. 4월 1일 용성 스님이 입적하였다.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오도송을 읊었다. 스님의 친필 이력에는 동화사 금당이 아닌 운부암에서 안거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친필 오도송에는 '29세 금당에서'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이미 괴각이라고 소문이 나서 금당선원의 방부가 거절되었다고 한다.

오도 이후 장좌불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안거를 은혜사 운부암에서 냈다. 운부암에서 단식 정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평생의 선우인 향곡 스님을 운부암에서 처음 만났다. 깨달음을 얻어 오도송을 읊고 나니 깨달음의 점검을 위해 제방에서 정진한다." 순례단은 선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스님의 흔적을 더듬었다.

통일대전에서 범화가 시작됐다. 원택 스님의 범문이 이어졌다. 성철 스님이 어른이 되셨을 때였다. 원택 스님은 연로해진 성철 스님의 모습에 문득 걱정이 들어 조심스럽게 여쭈었다고 한다. "스님, 이제 서서히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놈! 가긴 어딜 가!" 그때까지 원택 스님은 큰스님의 오도송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스님, 스님의 오도송을 도반이셨던 향곡 스님이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스님의 오도송을 알지 못하니 스님의 오도송을 정리해 주십시오." 시봉의 간곡한 물음과 애절한 성화에 스님은 오도송을 정리한다. 노장은 앉은 자리에서 작은 수첩 한 장을 찢어 스물아홉에

운부암에서 지은 오도송
방부 거절한 금당에서 읊어
시봉도 알지 못한 29세 오도송
말년에 쪽지 한 장에 적어줘

지은 오도송을 적는다. '...동화사 금당, 29세.' 원택 스님이 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눈부신 한지에 햇빛이 반짝이지 않았다. 찢어낸 수첩 한 장, 한국불교 1600년 연보에서 근대에 가장 주목받으며, '깨달음'을 불러일으킨 스님의 오도송은 그렇게 전해졌다. 원택 스님이 말을 이었다. "스물아홉에 쓴 원본엔 운부암에서 쓰신 것으로 되어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본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행장대로다. 운부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철 스님이 대중에게 오도송을 알린 곳은 동화사 금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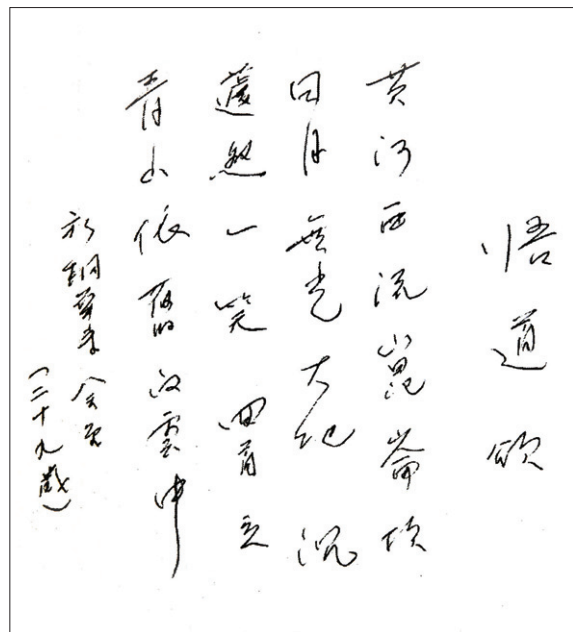
원택 스님의 범문이 끝나고,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 범문을 독송하며 스물아홉의 스님과 만났다. "참다운 불공.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님입니다. 내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 불공(佛供)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밤마다 가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철 스님은 공부를 늦추지 않았다. 점검을 위해 각지의 제방과 선지식을 찾아 나선다. 스님은 먼저 조계산으로 향했다. 다음 순례는 10월 13일 조계산 송광사다.

글·사진=박재환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성철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 스님이 금당선원 앞에서 스님의 오도송과 금당선원을 순례단에게 소개하고 있다.



성철 스님이 80세 때 원택 스님에게 적어준 오도송



운부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철 스님은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오도송을 읊었다. 금당선원 전경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훤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위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훤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토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훤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북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격: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북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북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안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집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시방,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마운선,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호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당,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제서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